

‘저온 서남해’ 어민들 냉가슴

수온 회복 늦어 어획량·조업횟수 전년보다 30~40% 줄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된 한파 영향으로 바다수온이 낮아져 어획량이 부진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해남을 비롯한 목포 인근 지역 해안의 경우 1월 바다수온은 3.57~6.29도(평균 5.33도), 2월에는 4.07~6.37도(평균 5.34도)로 평년보다 2~3도 낮은 바다수온의 변화를 보였다.

3일 현재 목포 인근 바다수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 6.5도보다 낮은 5.6도를 보였다.

또 지난 1~2월 여수연안 수온 변화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평균수온은 7.2도보다 2도가 낮은 5.2도로 2월 초부터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1도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수산과학원 아열대 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제주해안 표층수온이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12도 이하로 지속됐다. 센터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어장형성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외도동에서 20년간 수온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저수온을 보인 것이다. 연도별 12도 이하 수온을 기록한 해는 1991년과 1996년, 2010년 2월에 각 2회씩 있었으며, 2000년과 2001년, 2003년에 각 3회씩 20년간 총 15일 정도로 조사됐다.

바다 물고기들의 성장과 활동의 적정수온은 평균적으로 18~22도 1~2도만 변화가 있어도 서식 어종과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보통 2월 중순까지 수온이 하강했다가 상승세를 보이지만 현재 목포 인근 바다 표층수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 6.5도보다 낮은 5.6도로 회복이 평년에 비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어획고도 지

난해 2월 같은 기간 대비 올해는 30~40% 감소하고 조업 횟수도 줄어 들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갈치 30~40미 한 상자에 50만원(마리당 1만2000원), 조기도 상품 100미 한 상자에 50만원(마리당 5000원) 상당의 높은 가격대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경총 뛰었다.

어민들은 “기상악화와 한파로 정상적인 조업을 못한데다 수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낮아져 어획량이 부진해 적자예측이 되지만 할 수 없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열대 수산연구소는 “해안 표층수온의 하강은 불철 밀치 등 난류성 어종의 복상과 어장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별치를 따라 형성되는 주요 회유성 어종의 어장형성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진기자 sslee@

군부대 울려 퍼진 ‘맘마미아’

해군3함대, 목포시립악단 초청 공연

해군 3함대는 최근 부대내 대강당에서 전 장병 및 군무원, 군 가족을 대상으로 목포 시립 교향악단(지휘자 진윤일) 초청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서 목포 시립 교향악단은 무지개 ‘맘마미아’와 ‘캣츠’의 주제곡을 비롯해 록밴드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등을 선보였다.

해군 3함대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 장병의 전투의지 고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다채로운 공연



계획을 수립해 장병 사기진작과 문화적 욕구 충족에 힘쓰는 한편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대, 고마운 부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근호 소령(정훈공보실장)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단체 공연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대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신뢰받는 공직풍토 앞장서겠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3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체영상관에서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 공무원들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5개 항을 결의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해남 우수영에 ‘서바이벌 게임장’

문광부 지원사업 선정...6억 투입

‘명량대첩지’로 유명한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조성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에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군은 테마공원 지구에 국비 3억원·군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해 유격장과 교육 훈련시설 등을 갖춘 1만6421㎡ 규모의 다양한 모험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인 우수영관광지는 그동안 청소년들의 해방대 캠프와 극기체험, 조선시대 저잣거리 운영, 조선 수군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색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들어 우수영 관광지가 모험과 극기 체험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애국혼을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경기자 dia@

목포대 14일부터 ‘민속 체험학습’ 운영

목포대학교는 오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민속)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진돗개, 다도(茶道), 민속 연(儺), 사물놀이, 도자기, 뿌리공예, 무용, 가야금 등 8개 분야로, 수강

료는 전액 무료이다. 목포대 학생생활관생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시 수업참여 우수 수강자 시상도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 한국어 회화강좌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희망자는 목포대 학생생활관

행정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dormi.mokpo.ac.kr), 전화(061-450-2909)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목포대 박물관은 지난 3일 ‘제15기 남도 역사문화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2003년 ‘남도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주제로 시작된 ‘남도 역사문화대학’은 남도인의 삶과 사상, 예술, 문화유산 등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진기자 sslee@

종착역 없는 ‘전주 버스파업’

노·사 줄다리기가 속 충돌 위험...市·道 대책 불협화음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전주 시내 버스 파업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중재나 해결책이 미진한데다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속해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조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극한 대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뒀인 발을 쫓고 노·사의 상생을 위해서는 양측이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안’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파업 석달 가중되는 시민불편= 파업기간 동안 사측은 전세버스 투입 등 운행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운행률은 여전히 60~70%대에 머물러 겨울철 노인인 등 큰 고충을 겪었고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노사는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몇 차례 대화에 나서기도 했으나 각자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교섭 약자를 불모로 한 파업이 기약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북·전주시 해결책 ‘엇박자’= 파업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중재와 해결책 제시에 나섰다. 사태를 되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가 시민불편을 덜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운행률이 80%를 넘지 않으면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키로 통보하고 2일 운행률이 50%에 그치자 실제 보조금 중단에 결정했다. 도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1분기 보조금은 6억여원, 전주시는 20여억원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던 전주시가 불연 태도를 바꿔 예정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이마저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

▷사회단체 ‘사회적 합의안’ 여론=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 각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은 거부했다. 사회적 합의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주는 현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지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시의회

가 언 토론회에서 전북번호사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안한 파업 해결 방안이다.

전주 정치권은 “전주 버스노조 민노총 지부가 합법노조이며 교섭대상이라는 것은 현행 노동법은 물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회사 측은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장기적으로 버스 공영제 도입해야= 사회적 합의안이 매우 포괄적인 만큼 구체화하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측이 합법노조인 민노총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면 이번 파업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시내버스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연간 120여억 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상태지만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회에 아예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형수기자 knews@



구제역 울고갈 소 청정 먹거리

불기운이 완연한 지난 6일 정읍시 금봉동 들녘에서 한 부자가 소에게 먹일 볏짚을 수레에 싣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수를 하고 남은 짚으로 소 여물은 물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연황뉴스

단신

티모테크놀로지, 익산에 태양전지 생산시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인 ㈜티모테크놀로지가 익산 일반 산업단지에서 차세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설치한다. 익산시와 ㈜티모테크놀로지는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는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주)티모테크놀로지 이혁수 대표이사, 전북

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티모테크놀로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익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9917㎡에 총 300여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소방서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다음달 1일부터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소방도로상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14

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된다. 김화성 서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및 119 구급차량 길 터주기에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성기자 hnews@

전북대 평생교육원 식품생명공학 과정 ‘인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 과정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 장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첫 출발한 순창분원은 지난달 첫 졸업생 30명을 배출했으며 현재 ▲1학년 33명 ▲2학년

25명 ▲3학년 25명 ▲4학년 31명 등 총 114명이 재학하고 있다. 순창분원은 순창군에서 자기계발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등록금 120만원 중 50%인 6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도, 임실에 소방안전체험 센터

임실에 소방교육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 센터가 건립된다.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재난에 일반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

방안전체험센터 기공식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 계획이다. 소방체험센터는 임실군 이도리 20여 원을 들여 2014년까지 훈련센터, 숙박시설 등의 시설과 기관을 갖출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

체육공단 여자축구단 전북 연고 내일 창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이하 여자축구단)이 전북에 동지를 둔다. 전북도는 여자축구단 창단을 준비 중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연고팀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 7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은 9

일 서울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공식 창단식을 가진 후 전북축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하고,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92회 전국 체육대회’부터 전북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된다. 또한 여자축구단은 각종 대회에 전북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물론 도내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등 전북 연고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자축구단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전희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강재순 감독과 코치 2명, 트레이너 1명, 선수 2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선수단은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없이 맨땅에서 연습해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에서 우승, 화제가 됐던 한별고 졸업생 이세음·장운지·이유라 등 전북출신 선수가 3명이나 포진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수비수 이유라는 지난해 종별 여자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고 국가대표 삼비군으로 선발되는 등 한국 여자축구를 이끌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영철기자 k0765@